

## 세계적 철새도래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와 산남습지(이상 고양시 소재), 시암리 습지와 유도(이상 김포시 소재) 일대 60.668km<sup>2</sup>가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된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앞으로 관련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생태탐방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정범위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화면 송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이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한 내륙습지 보호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10개소 45.861km<sup>2</sup>보다 1.3배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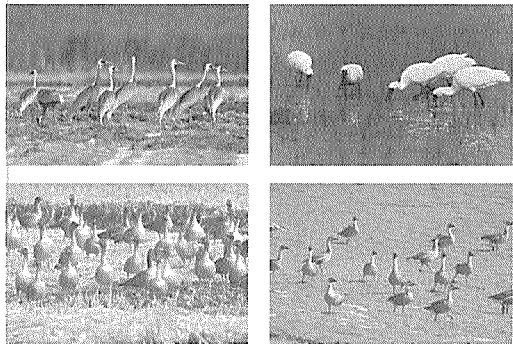
한강하구는 바닷물이 거슬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이 잘 보전돼 있다.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 1급 4종과 재두루미, 개리 등 조류 16종, 금개구리 등 양서류 2종, 매화마름과 샨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김포시 월곶면 유도는 저어새의 산란지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수도권 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이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특별한 지역”이라며 “오는 6월부터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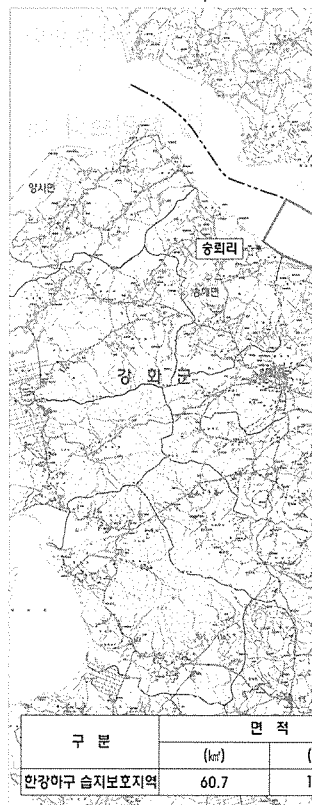
아울러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지역을 람사습

지(1971년 람사협약에 따라 채택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개리

- ▼ 산남습지
- ▼ 시암리습지
- ▼ 장항습지



## 한강하구 경제적가치 연간 7,327억원

KEI 연구결과... 반드시 보호해야 할 곳

한강하구의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7,337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을 통해 한강하구의 가치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7,3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치는 수산물 생산이나 수질정화 기능은 물론 여가나 심미적인 안정감에 기여하는 기능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후손에게 물려주

었을 때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포함되었다.

실제로 한강하구는 삼교천, 금강, 낙동강 등 우리나라 주요 하구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하구 특성을 잃은 가운데, 고유한 하구특성을 간직한 유일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사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면서 하구습지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한강하구는 동아시아-호주를 오가는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 철새가 중간기착하는 곳으로 '02년에는 108종 8만2천여개체의 철새가 관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범부채, 매화노루밥풀과 같은 특이생물이 자생한다.

이런 연유로 KEI는 이곳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건강한 황해생태계 유지를 위해 핵심관리지역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총괄도



▼ 유도  
▼ 신곡수중보에서 보이는 한강

